



크리스마스 썰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협회 주요 사업인 크리스마스 썰 모금 활성화를 위한 CF 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CF는 어른들에게는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썰을 샀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결핵이나 크리스마스 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자 기획되었다.

나의 학창시절 한 권에도 크리스마스 썰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다.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카드와 봉투 위에 소중하게 한 장 한 장 썰을 붙이던 기억이다. 썰이 붙은 편지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수많은 수신자 중 몇 장 안 되는 썰을 누구의 편지에 붙여야 할지를 두고 고민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이렇게 완성된 편지는 우체통을, 집배원 아저씨의 손을 거쳐 누군가에게로 배달되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을 전했다.



CF는 학창시절 크리스마스 썰을 샀던 기억을 되짚고, 그때 몰랐지만 지금은 그 썰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결핵 치료를 받고 완치된 분들의 미소가 화면을 가득 메운다. 그리고 협회에서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들이 영상으로 전해진다.

혹자는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썰이 쓸모없다고 말한다. 차라리 문구를 만들어 파는 것은 어때냐고, 아니면 썰을 팔지 않고 기부를 받는 것은 어때냐고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썰이 썰일 때의 가치, 담을 수 있는 의미는 또 다르다고 믿는다. 만약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다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시작된 크리스마스 썰 CF.

광고 속 카피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들이 모이고 쌓여 올 크리스마스 썰 모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결핵으로 몸과 마음에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썰이 되길 기원해 본다.‡